

제2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2017. 5. 22.(월) 11:00

시정질문 답변자료



구 미 시

윤종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 구미시 쌀 및 농산물 품목별 브랜드 단일화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판로를 개척 하라.

◇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농업관련 예산이 일반 예산의 15%
였으나 2013년 13.3%에서 점점 줄어드는 실태입니다.
남은 임기 기간 내 구미농업정책 방향을 제시하라?

◇ 구미시는 쌀 및 농산물의 각종 브랜드 단일화로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미시의 대책은?

◇ 최근 5년 지역내 농협 RPC 평균 가동율이 33.73%이다
RPC통합은 농협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RPC 활성화 관련 구미시의 대책은?

◇ 공공수매에 따른 농협의 쌀 판매로 매년 적자폭의 증가는
농협간 과다 경쟁으로 농협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다.
이에 농협은 구미시의 각종지원 사업으로 적자폭을 줄이는
실정으로 구미시의 쌀 판매 관련 근본 대책은?

◇ 80억대 구미시의 무상급식비 지원에 따른 구미시의
농산물 소비는 미비한 실정이다. 구미시의 농산물
소비(판로)대책과 기업연계 판매 대책과 전략은?

◇ 타 지방 농기계임대사업장 현황이 증가 추세로 구미시도
지난해 추가로 예산이 반영된 사례가 있다.
구미시 향후 증설 대책은?

□ 인사말씀

- 43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김익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그리고,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구미시 쌀 및 농산물 품목별 브랜드 단일화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판로 개척하라.」 건에 대한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농업관련 예산 공약이 일반 예산의 15% 였으나

2013년 13.3%에서 점점 줄어드는 실태인데 남은 임기기간 내 구미농업정책 방향을 제시하라는 데 대한 답변입니다.

- 우리시 농업인구는 2015년말 23,217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6%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예산은 2017년 1,106억원으로 일반회계의 12.3%이며 2006년 당시 378억에 매년 증액하여 예산증가폭 보다 높게 반영하여 왔습니다.
- 우리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업이 주산업을 이루고 있는 타 시군과 비교 해 볼 때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 매년 증가하는 사회복지비 부담 증가로 어려움이 있으나 지역 농업인의 다수가 소득을 높이는 사업에 중앙정부, 경북도와 연계하여 국·도비 확보로 농업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농업은 국제시장 개방으로 무한경쟁과 잦은 기상이변. 농촌의 노령화에 따른 공동화 등 농촌의 어려움이 있으나 식량안보와 국가경제의 기간산업으로서 국민정서, 휴양 공간 등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 가시권내 농로 100% 포장과 같이 지속적인 기계화 경작로, 물 걱정 없는 수리시설 확보, 농업기계화 등 전천후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는 농업기반 조성을 해 나가겠으며
- 농가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친환경 농업. 원예. 과수. 특화작목 개발, 향토 산업 발굴, 농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예비 대표농산물 쌀, 멜론, 감자에 대해 지역 소득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재배 품목 다양화로 국·도비 연계사업을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가공, 유통판매, 체험, 관광을 연계하는 6차 산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소득원 확보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겠으며 무을6차림, 산림에코랜드 등 휴양 공간 조성으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농촌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농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다시 돌아오는 농촌, 활력 넘치는 농촌을 위해 전 농업인과 함께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 구미시는 쌀 및 농산물의 각종 브랜드 단일화로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대한
우리시 대책입니다.

- 구미시 관내 쌀 브랜드 현황은 선산쌀, 흑두루미쌀 등 총 23개가 있으며 농협별, 일반정미소별로 개별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2006년도부터 공동 브랜드로 『구미별미』를 개발사용하고 있습니다.
- 농협과 일반정미소의 개별 브랜드를 『구미별미』 공동브랜드로 단일화 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으며
- 앞으로 구미별미 쌀은 소비자가 요구하는 밥맛 좋은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구미별미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근 5년 지역내 농협 RPC 평균 가동율이 33.73%이며
RPC 통합은 농협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RPC 활성화에 관련한 우리시 대책입니다.

- 선산, 해평 RPC의 최근 5년간 평균 가동율은 33.73%이며 2005년 구미시지역 농협 RPC 통합추진을 위하여 (주)지역농업네트워크에 컨설팅 의뢰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통합을 추진하다가 선산, 해평 농협 간 경영여건과 지분출자 등에 따른 갈등으로 통합추진이 무산 되었습니다.
- 2016. 6. 22. 구미시지역 농협운영협의회를 개최하여 앞으로 RPC 해당농협인 선산, 해평 조합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시의원, 농협시지부장 등 15명으로 『구미시지역 농협RPC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 통합 추진을 논의 할 계획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국 RPC 현황은 총 233개소 중 통합이 51개소로 약 48%정도이며, 경북에는 29개소 중 3개소가 통합되었습니다.
- 통합 RPC 경영실태를 보면 전국 21개소(46%)는 흑자이고, 25개소(54%)는 적자이며, 경북은 통합 3개소 중 의성, 예천 통합 RPC는 흑자를 올리고 있으나 경주 통합 RPC는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통합 RPC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은 지자체와 시의회에서 주도하여 통합 추진하는 것보다 농협 자율적으로 통합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 RPC 통합시 대책은 해당 농협에 5년간 매년 20억원의 벼 매입 자금과 건조저장시설 개선비 9억원, 가공시설비 4억원, 홍보비 2억원 등 최대 12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우리시는 통합 RPC가 최대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는 물론 구미 별미 쌀 홍보 판로 개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공공수매에 따른 농협의 쌀 판매로 적자폭의 증가는 농협간
과다 경쟁으로 농협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다.

이에 농협은 구미시의 각종 지원 사업으로 적자폭을 줄이는
실정으로 우리시의 쌀 판매 관련 근본 대책입니다.

- 2016년도 구미지역의 쌀 생산은 45,045톤으로 농협에서 49%인
2만2천톤을 매입하였습니다.
- 원론적으로 농협의 적자폭을 줄이려면 매입원가를 시중가격 즉
현실 가격으로 매입을 하여야 하며, 판매할 수 있는 물량만 매
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사실상 농협은 농업인을 위하여
가격이나 매입량을 결정하다보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며
- 쌀 소비촉진을 위하여 관내 기업체에 서한문 1,164매 발송과
LG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관내 지역 쌀을 판매하기 위하여
기업체를 방문, 판촉 활동을 한 결과 효성, 한화 등과 지역 농협
간에 연결하였으나 결국은 가격이 맞지 않아 결렬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된 쌀 소비 촉진을 위하여
축제나 행사시에 가래떡, 식혜, 쌀밥 시식 등을 통하여 소비촉진
및 홍보를 해 나가겠으며
- 기업체, 학교급식, 기관단체 등 지역 쌀 소비촉진 홍보 및 판로
개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80억원대 무상급식비 지원에 따른 구미농산물의 소비가 미비하다는데 대한 우리시 농산물의 판매 대책과 전략입니다.

- 초·중학생 무상급식비 지원은 교육의 공공성 및 복지 증진 차원에서 매년 시민공감대를 바탕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2017년 초·중학생 급식비 지원예산은 72억8천6백만원으로 전체 초·중학생 40,719명의 55.5%인 22,619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 또한, 초·중학생 급식비 지원 외 학교급식 질 향상과 구미 농축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지 않은 친환경 쌀 차액지원, 학교급식 후식용 우수농축산물 지원을 비롯한 학교급식관련에 64억8천3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학교급식에 구미농산물이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읍면지역부터 식품비는 지자체에서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분리 지원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통하여 관내 친환경 인증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공급되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구미시 농기계임대사업장 향후 증설대책입니다.

- 농기계임대사업장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의 2항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 및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전반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 기술인력, 조직 및 지방비 확보가 가능한 지자체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추가 설치하고 있음
- 2009년부터 2015년에 걸쳐 총사업비 51억원을 투자하여 2개소의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예산 10억원으로는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추가 설치하지 않고 본소에 농기계교육장 및 기계보관창고 등 시설을 정비한 바 있음
- 구미동지역 농업인들의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 요구가 있어 지산동일원 국유지 및 사유지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농기계임대사업소 추가 증설에는 35억원(토지매입, 신축, 기계구입 등)의 사업비와 전담 기술인력(계약직 2명) 확보가 필요하며 매년 운영에 따른 예산이 6 ~ 7억 소요되고 지산 임대사업소 설치로 타지역 농업인들의 임대사업소 설치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음
- 구미시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추가 설치에 따른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원거리에 있는 농업인들의 불편 해소와 합리적인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다각도로 연구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